

경남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의견조사

2021. 5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경남지역 벤처기업 현황과 애로점을 알아보고 지원제도에 대한 업체 의견을 수집해 향후 벤처기업 육성 지원 사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함.

1) 조사기간

- 2021년 4월 12일 ~ 30일

2) 조사방법

- Fax, E-mail(온라인 설문)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3) 설문 응답업체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업체 수(개)	비중
업력 7년 미만	34	27.0%
업력 7년 이상	92	73.0%
총 응답업체	126	100.0%

4) 조사사항

- 경남지역 벤처기업의 기술 및 서비스 수준 평가
- 경남지역 벤처기업 운영의 전반적인 여건
- 경남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체 의견

2. 경남지역 벤처기업 현황

1) 벤처기업의 정의 및 특징

○ 벤처기업의 정의는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 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벤처기업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커다란 위험 부담을 지닌 모험기업(Venture Business)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대기업이 수해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벤처기업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산업 혁신의 촉매로 인식되면서 각국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의 실리콘 와디, 케냐의 실리콘 사바나 등 벤처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음.

더불어 국내 각 지자체에서도 침체된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신규 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유치와 육성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1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기 이전 벤처기업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아래 벤처투자·연구개발·보증대출 유형일 것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정의해왔음. 즉 다섯 가지 벤처확인 유형인 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 ④ 예비벤처기업 중에서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왔음.¹⁾

본 보고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1) 2021년 2월 12일부터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됨과 동시에 주요 평가 및 심사 업무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음.

유형별 벤처기업 요건(2021년 2월 개정 이전)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 및 사업성 평가 기관
벤처투자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벤처투자기관²⁾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 2.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3년 이상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도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2021. 2월부터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 기반 자금 중 신성장 유망 지식서비스 관련 자금 ▶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 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자 2. 상기 1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자료 : 기술보증기금

2)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경남지역 벤처기업 현황

- 2021년 1월 기준, 전국 벤처기업 수는 3만 9,591개임. 이 중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30.4%, 25.1%로 전국 벤처기업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경남의 벤처기업 수는 1,929개 사로 전국 벤처기업 수의 4.9%를 점해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전국 시·도별 벤처기업 수 현황

(단위 : 개사, 2021년 1월 기준)

순번	지역	벤처기업 수	비중	순번	지역	벤처기업 수	비중
1	경기	12,053	30.4%	10	충북	1,145	2.9%
2	서울	9,946	25.1%	11	전남	889	2.2%
3	부산	2,210	5.6%	12	전북	870	2.2%
4	경남	1,929	4.9%	13	광주	808	2.0%
5	인천	1,768	4.5%	14	강원	765	1.9%
6	경북	1,702	4.3%	15	울산	546	1.4%
7	대구	1,662	4.2%	16	제주	238	0.6%
8	대전	1,542	3.9%	17	세종	163	0.4%
9	충남	1,355	3.4%			39,591	100.0%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경남 소재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684개 사로 경남지역 벤처기업의 8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보처리·S/W업 90개 사(4.7%), 건설·운수업 28개 사(1.5%), 연구개발서비스업 13개 사(0.7%), 농업·임·광업 12개 사(0.6%), 도·소매업 12개 사(0.6%) 순임.

- 전국의 업종별 벤처기업 비중과 비교해보면, 경남의 제조 벤처기업 수 비중은 87.3%로 전국의 제조 벤처기업 수 비중 64.9% 보다 22.4%p 높음. 반면, 경남의 정보처리·S/W 벤처기업(4.7%)의 수 비중은 전국(18.5%)에 비해 13.8%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대규모 장치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경남 업종별 벤처기업 수 현황

(2021년 1월 기준)

업종	전국		경남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제조	25,686	64.9%	1,684	87.3%
정보처리·S/W	7,332	18.5%	90	4.7%
연구개발서비스	848	2.1%	13	0.7%
농·어·임광업	107	0.3%	12	0.6%
도소매	977	2.5%	12	0.6%
건설·운수	788	2.0%	28	1.5%
기타	3,853	9.7%	90	4.7%
전체	39,591	100.0%	1,929	100.0%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이러한 특성은 벤처기업 인증 경로별 비중에서도 나타남. 경남의 벤처기업의 인증 경로별 비중은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이 7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이 15.0%를 차지해 전체 94.5%가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기업 비중 85.0%보다 14.5%p 높음. 이는 기술이나 시장성을 가진 혁신형·성장형 벤처보다 재무적 안정성 위주의 기업이 많음을 의미함.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증·대출 가능 기준이 재무 건전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2021년 2월부터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과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 유형이 벤처기업 인증 요건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남내 벤처기업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개연성이 높음. 단, 연구개발유형 요건 중 연구개발조직범위가 늘어나는 등 일부 요건이 완화되었고, 인증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음. 이에 따라 경남의 벤처기업 지원사업의 방향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면 경남의 벤처기업 중 연구개발기업으로 인정받아 벤처기업 자격을 취득한 기업의 비중은 4.2%(전국 7.2%),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가 이루어져 벤처기업을 취득한 기업의 비중은 1.1%(전국 7.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전국의 자격 취득 경로별 벤처기업 비중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임.

경남 자격 취득 경로별 벤처기업 수 현황

(2021년 1월 기준)

업종	전국		경남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	29,115	73.5%	1,534	79.5%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	4,537	11.5%	289	15.0%
연구개발기업	2,869	7.2%	81	4.2%
벤처투자기업 (창투자 등이 자본금 10%이상 투자)	2,944	7.4%	21	1.1%
예비벤처	126	0.3%	4	0.2%
전체	39,591	100.0%	1,929	100.0%

- 경남 지역별 벤처기업 수를 보면, 창원시와 김해시가 각각 623개, 553개로 경남 벤처기업의 각각 32.3%, 2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양산시(214개), 진주시(136개), 함안군(120개) 순이었음.

○ 경남 내 기초자치단체의 업종별 비중은 전 지역에서 제조 벤처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창원시는 제조업과 정보처리·SW 벤처기업 수가 각각 521개, 57개로 경남 내에서 가장 많고, 연구개발 서비스와 농·어·임·광업 벤처기업의 수는 진주시가 각각 7개, 4개로 가장 많았음.

중소기업이 밀집한 김해는 벤처기업 중 제조업 비중이 92.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제조 벤처기업이 소재해 있음.

경남 지역별·업종별 벤처기업 수 현황

(2021년 1월 기준)

	제조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농어 임·광업	도소매	건설 운수	기타	계	경남내 비중
창원	521	57	2		2	11	30	623	32.3%
김해	513	10	1	1	4	5	19	553	28.7%
양산	214	6	1	1	1		9	232	12.0%
진주	96	10	7	4	2	5	12	136	7.1%
함안	114				1	2	3	120	6.2%
사천	45	2	1			2	3	53	2.7%
밀양	46			1		1	3	51	2.6%
거제	17	4	1	2	1		7	32	1.7%
창녕	29					1		30	1.6%
하동	15							15	0.8%
거창	15							15	0.8%
산청	12					1		13	0.7%
고성	11				1		1	13	0.7%
의령	11			1				12	0.6%
통영	8			1			2	11	0.6%
합천	7			1			1	9	0.5%
함양	8	1						9	0.5%
남해	2							2	0.1%
계	1684	90	13	12	12	28	90	1929	100%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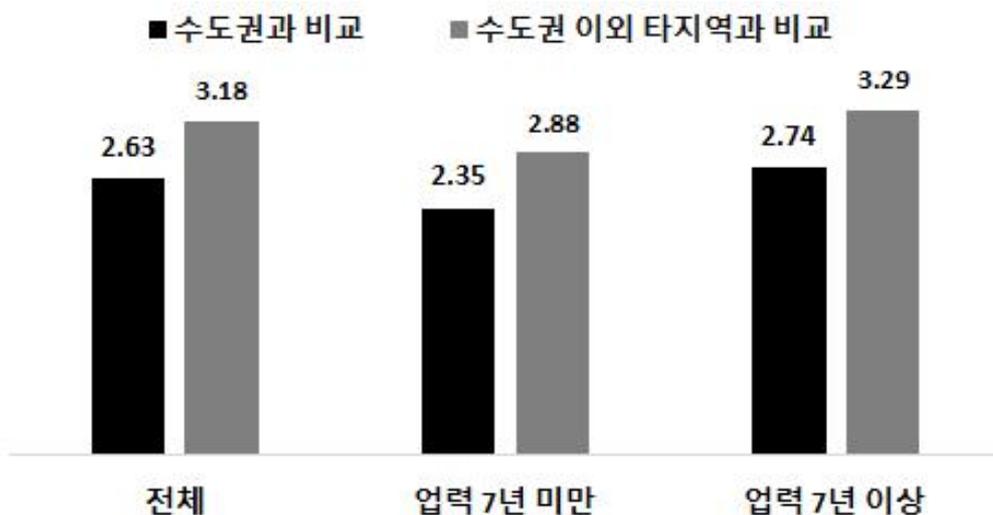
3. 경남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견

본 보고서는 경남지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설문 응답업체 수는 총 126개임.

1) 경남지역 벤처기업 운영 여건

- 본 조사의 응답업체(n=126)들은 경남지역의 벤처기업 운영 여건이 수도권과 비교(2.63, 기준 : 3.0)해서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수도권 이외에 타 지역과 비교(3.18)해서는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음.
- 단 업력 7년을 기준으로, ‘업력 7년 미만’의 업체는 수도권(2.35) 뿐 아니라 수도권 외 타지역(2.88)과 비교해서도 경남의 벤처 여건이 좋지 않다고 답한 반면, ‘업력 7년 이상’의 업체는 수도권 이외 타지역과 비교(3.29)해서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음.

경남지역 벤처기업 운영에 있어 체감 여건



※ 3.0 이상이면 체감 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함을 의미하고, 3.0 이하면 그 반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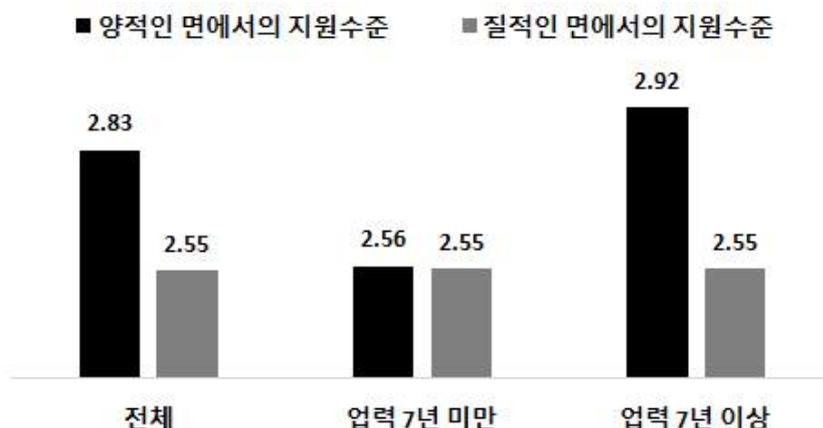
○ 이는 벤처기업의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술과 서비스가 성숙기를 거치면서,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경남의 장점에 편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창업 초기의 기업은 대체로 창업 지원과 벤처기업 인증 후 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음. 이를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 창출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대규모 제조업 기반이 갖추어진 경남이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나아가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결국 생산성 중심의 중소기업화 또는 대규모 제조기업의 협력업체로 자리매김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 또한 경남이 가진 산업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 육성의 한 방향으로 설정해 지원사업화해 벤처기업에서 대규모 기업의 제조혁신 지원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노력도 주요할 것임.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만족도를 보면, 응답업체들은 수도권과 비교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음. 특히 질적인 면에서의 지원수준(2.55)이 양적인 면에서의 지원수준(2.83)과 비교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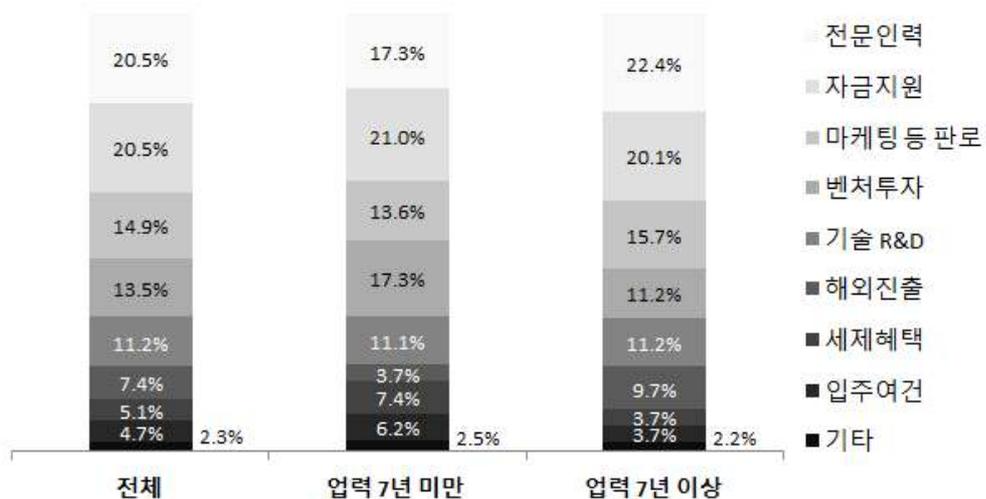
수도권과 비교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만족도



※ 3.0 이상이면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함을 의미하고, 3.0 이하면 그 반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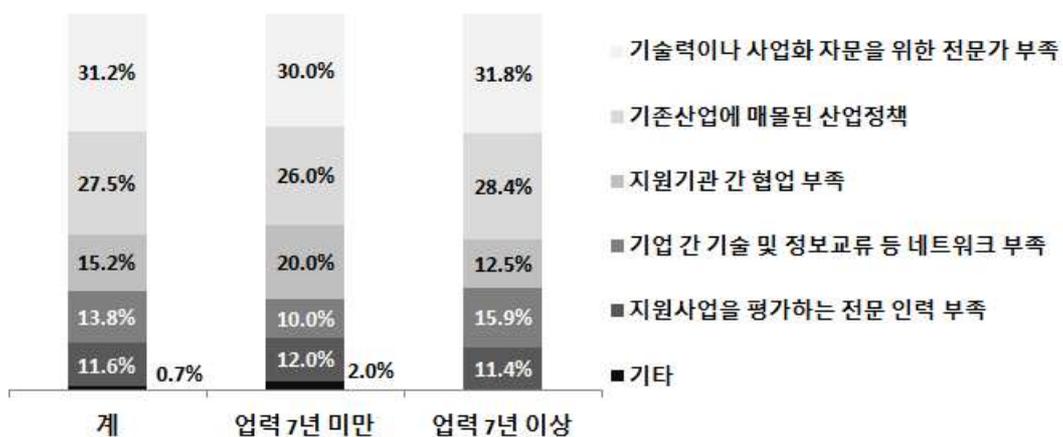
- 업력 7년을 기준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대체로 ‘업력 7년 미만’이 ‘업력 7년 이상’의 벤처기업 보다 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이는 기업경영 여건과 자산을 상대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은 ‘업력 7년 미만’ 벤처기업이 지원제도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함. 대체로 경남의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이 초기기업보다는 실적과 업력을 갖춘 기업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함.
- ‘업력 7년 이상’ 벤처기업은 양적인 면에서의 지원 만족도(2.92)는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업력 7년 미만’ 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2.56)를 보였음.
- 주목할 점은 질적인 면에서의 지원 만족도가 업력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은 대부분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 각 지자체의 특별한 지원책을 제외하면 양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관건은 이러한 양적 지원에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적 지원을 높여 이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양적인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분야



- 경남의 벤처기업 육성·지원책이 양적인 면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어떤 분야에서 이러한 점을 느끼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인력’, ‘자금지원’을 각각 20.5%로 가장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 ‘마케팅 등 판로’ 14.9%, ‘벤처투자’ 13.5%, ‘기술, R&D’ 11.2% 등의 순으로 답했음.
- 자금부문은 벤처기업 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진 애로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으나, 사업초기 기술 및 사업화 투자가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매출 발생이 미비한 벤처기업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더욱 클 것으로 보임. 자금부문과 더불어 전문인력 수급을 벤처기업 육성의 양적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큰 부문으로 꼽고 있음.
- 경남의 벤처기업 육성지원책의 만족도에서 양적인 면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어떠한 이유로 육성지원책의 질적인 면에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31.2%가 ‘기술력이나 사업화 자문을 위한 전문가 부족’을 꼽아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기존산업에 매몰된 산업정책’ 27.5%, ‘지원기관 간 협업 부족’ 15.2%, ‘기업 간 기술 및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부족’ 13.8%, ‘지원사업을 평가하는 전문인력 부족’ 11.6% 순으로 답했음. 벤처기업 육성지원책의 질적 만족도가 낮은 이러한 이유는 업력 구분 없이 공통된 의견임.

질적인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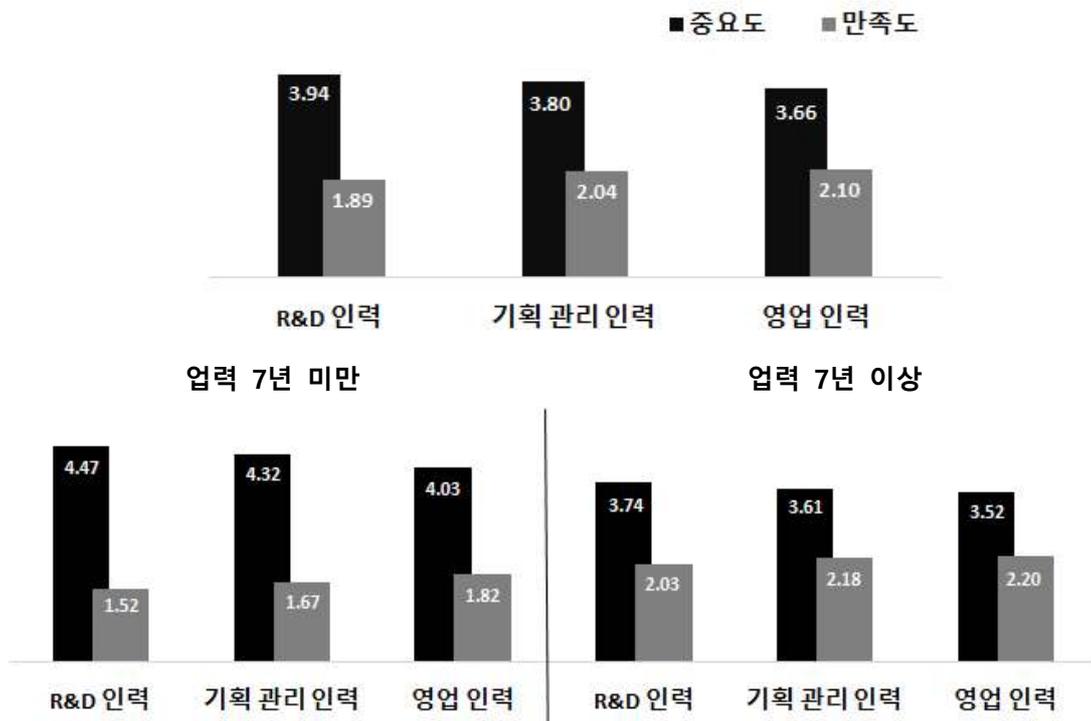


- 벤처기업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의견들을 취합하면, 대체로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거나 타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입히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컨설팅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를 채워줄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남 내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기술 뿐 아니라 기술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벤처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시사하고 있음.
- 다음으로 기존 경남의 주력산업에 집중된 각종 기업지원책이 벤처기업 육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는 경남의 기업지원사업이 조선, 기계, 자동차부품 등 육성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지원사업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벤처비즈니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지원기관 간 협업부족을 지적하는 응답비율도 높았음. 이와 관련한 업체 의견들을 취합해 보면, 대체로 유사 지원사업을 복수의 지원기관이 수행하거나, 신청절차와 수혜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음. 기업지원 기관별을 대표하는 지원사업을 보다 단순화해 수혜대상의 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또 기업 고유의 활동보다 정부지원사업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이 기업지원사업의 의도를 흐리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음.
- 기업 간 기술 및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지역의 기존산업과의 협업은 물론 벤처기업 간 융복합을 이끌어내는 활동이 지역 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다수의 응답기업들이 벤처기업 간은 물론 지원기관, 전문가, 벤처투자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수도권과 지방이 가진 가장 큰 차이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인력수급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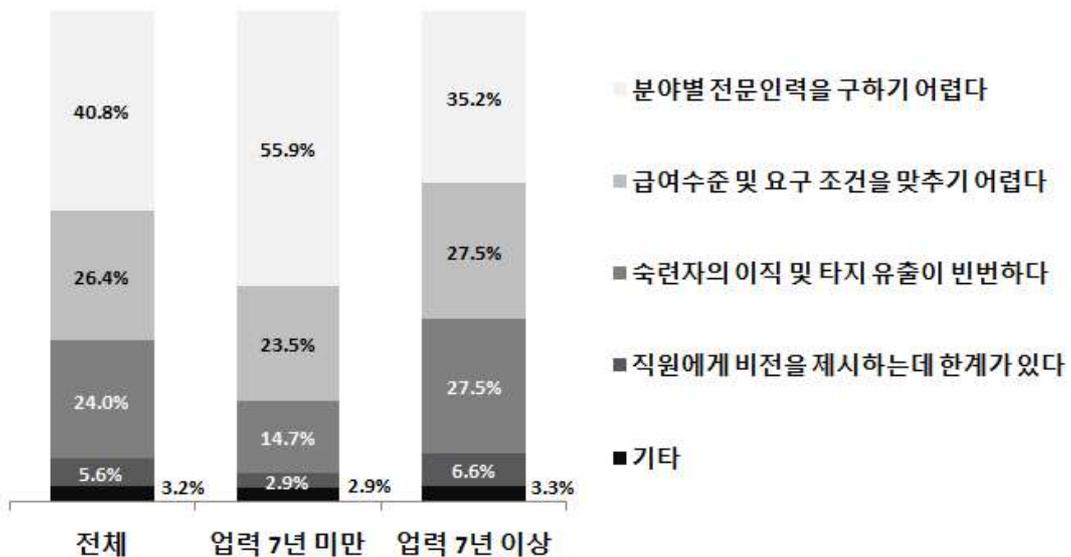
- 경남 벤처기업 육성지원책 중 양적인 면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문으로 전문인력 수급을 꼽은 바 있음. 부문별 인력수급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R&D인력(3.94), 기획·관리인력(3.80), 영업인력(3.66) 순으로 높은 중요도로 나타났음. 반면, 만족도에 있어서는 영업인력(2.10), 기획·관리인력(2.04), R&D인력(1.8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 특히 R&D인력의 중요도와 만족도사이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 ‘업력 7년 미만’ 벤처기업은 부문별 인력수급 중요도가 ‘업력 7년 이상’ 벤처기업 보다 높다고 응답했으나, 만족도는 더 낮은 경향을 보였음. 이는 ‘업력 7년 미만’ 벤처기업이 기술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수요와 기대치가 사업화 이후 시스템을 갖춘 ‘업력 7년 이상’ 벤처기업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부문별 인력수급 중요도와 만족도



- 인력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0.8%가 ‘분야별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급여수준 및 요구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26.4%, ‘숙련자의 이직 및 타지 유출이 빈번하다’ 24.0%, ‘직원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5.6%, ‘대학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이 힘들다 등 기타’ 3.2% 순으로 답했음.
- ‘업력 7년 미만’ 벤처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수급에 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인력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0.8%가 ‘분야별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급여수준 및 요구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23.5%로 뒤를 이었음. ‘업력 7년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 ‘숙련자의 이직 및 타지 유출이 빈번하다’라는 응답비중이 2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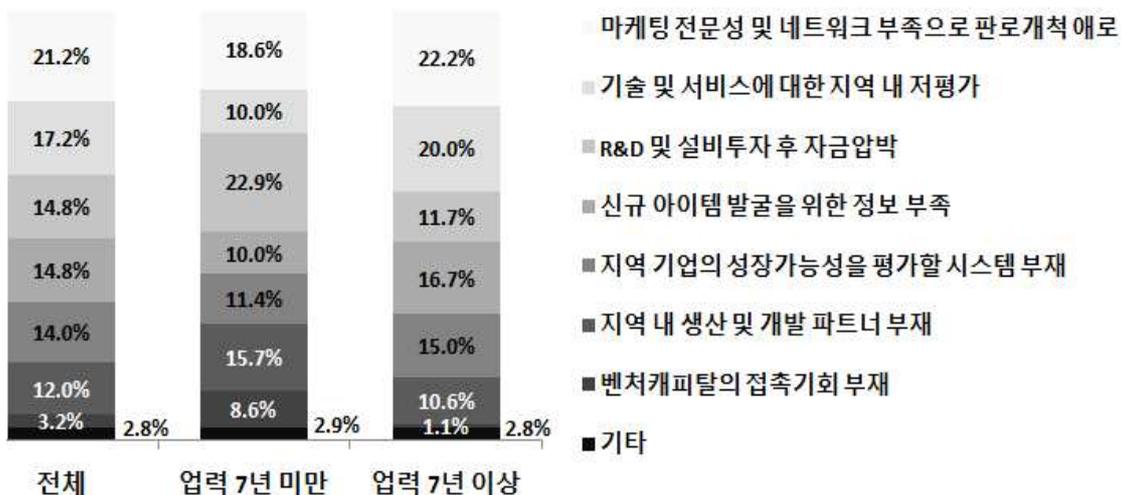
인력수급의 애로 요인



4) 인력수급 이외 주요 애로요인

- 인력수급에 따른 애로 이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판로개척 애로’를 21.2%로 꼽아 가장 많았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저평가’ 17.2%, ‘R&D 및 설비투자 후 자금압박’ 14.8%, ‘신규아이템 발굴을 위한 정보 부족’ 14.8%, ‘지역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시스템 부재’ 14.0%, ‘지역 내 생산 및 개발 파트너 부재’ 12.0%, ‘벤처캐피탈의 접촉기회 부재’ 3.2% 순이었음.
- 벤처기업 역시 일반 기업과 같이 수익창출을 통한 기업의 지속과 성장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술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마케팅 전문성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를 시장에 반영하거나 기존산업과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임. 이러한 면에서 벤처기업 육성책의 질적 만족도와 인력수급에서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응답한 앞선 설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임.
- ‘업력 7년 미만’ 벤처기업의 경우, 앞선 벤처기업 양적지원 부족의 응답과 같이 ‘R&D 및 설비투자 후 자금압박’을 22.9%로 가장 많이 꼽았음.

인력수급 이외 주요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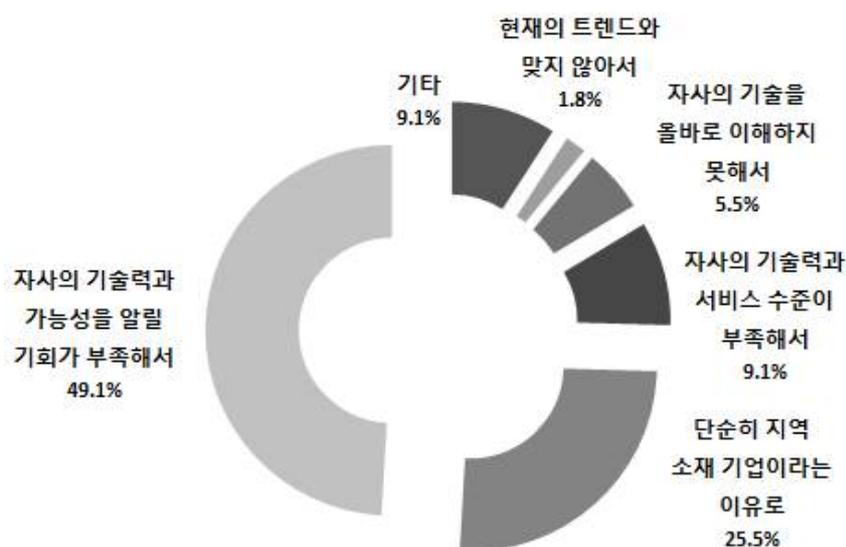


○ 대체로 판로개척과 지역내 저평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9.1%가 ‘자사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서’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단순히 지역 소재 기업이라는 이유로’ 답한 비중이 25.5%로 뒤를 이었음. 다음으로 ‘자사의 기술력과 서비스 수준이 부족해서’ 9.1%, ‘자사의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5.5%, ‘현재의 트렌드와 맞지 않아서’ 1.8% 순이었음.

○ 자사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들은 그 이유로 대부분 기회부족과 선입견 등 지방 벤처기업이 가진 지역적 한계를 꼽고 있음.

실제로 지역 내 기업 및 관공서 사업 참여에 있어 지역기업의 참여도가 낮다는 의견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온 문제임.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수행이력 일변도의 입찰방식에서 탈피해 지역기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지역 벤처기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역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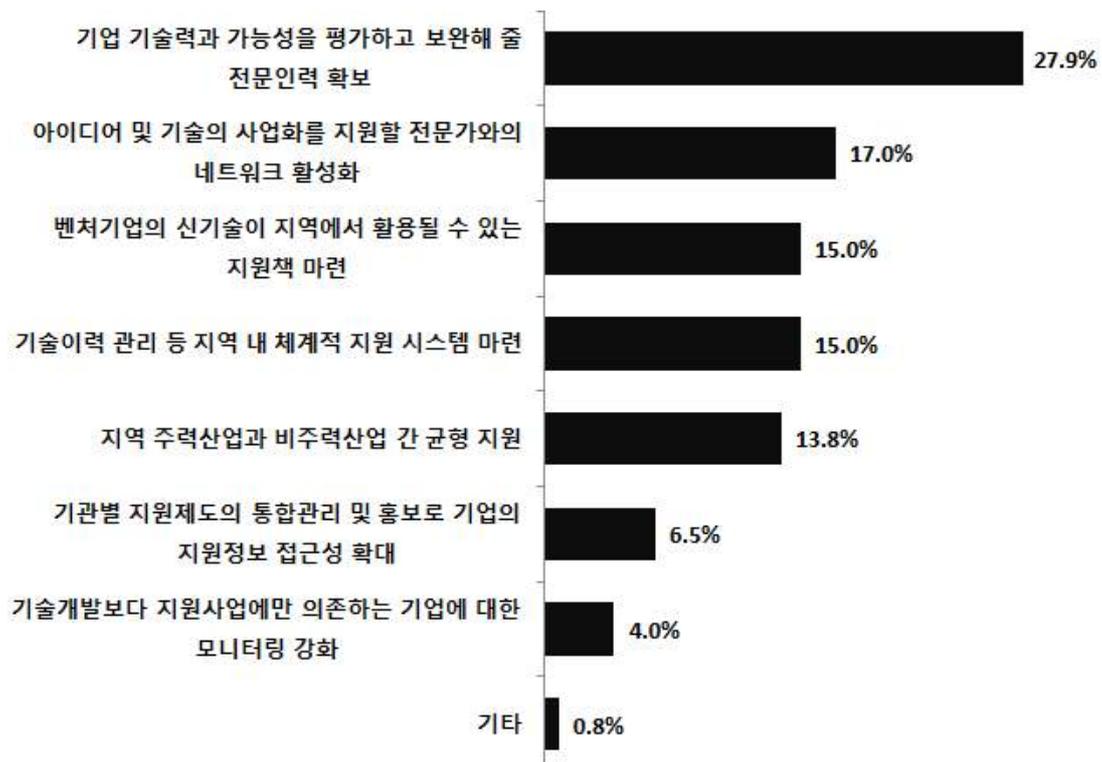
자사의 기술 및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5) 벤처기업 육성지원책의 질적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경남지역 벤처기업 육성지원책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27.9%가 ‘기업 기술력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완해 줄 전문인력 확보’로 꼽아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아이디어 및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17.0%, ‘벤처기업의 신기술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15.0%, ‘기술이력 관리 등 지역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 15.0%, ‘지역 주력산업과 비주력산업 간 균형 지원’ 13.8%, ‘기관별 지원제도의 통합관리 및 홍보로 기업의 지원 정보 접근성 확대’ 6.5%, ‘기술개발보다 지원사업에만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4.0% 순으로 답했음.

벤처기업 육성지원책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시사점 및 요약

● 시사점

- 조선, 기계, 자동차 부품 등 국내 제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해온 경남의 청년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³⁾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기존의 경남 주력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큼. 일자리 감소는 청년 인력의 유출을 낳고 이는 곧 성장둔화라는 악순환이 고착화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 각 지자체들은 벤처기업 육성으로 유출되는 청년층을 붙잡는 것과 동시에 침체된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음.
- 경상남도과 경남 내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벤처기업 육성에 있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 경남지역 벤처기업(설문 응답업체)들은 경남의 벤처육성지원이 양적인 수준에서의 지원은 타 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질적인 수준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가장 큰 이유로 기술력이나 사업화를 자문받을 전문가가 지역에 없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음. 또 육성지원책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도 기업 기술력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완해 줄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이디어 및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결국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극대화할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의 지역 유치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로 육성지원책의 질적제고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같은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업력 7년을 기준으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기업의 생성 이후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업력 7년 미만’의 벤처기업들과 성장기를 거쳐 성숙

3) 창원상공회의소, ‘2020년 경상남도 고용동향 조사’, 2021. 1

- 기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의 벤처기업 간에 차이로 풀이할 수 있음.
-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술과 서비스가 성숙기를 거치면서,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경남의 장점에 편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향을 띠게 됨. 결국 생산성 중심의 중소기업화 또는 대규모 제조기업의 협력업체로 자리매김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 또한 경남이 가진 산업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 육성의 한 방향으로 설정해 지원사업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현재 벤처기업 인증 조건이 대출과 보증 중심에서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되었음.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경남형 벤처육성지원책을 제조혁신 중심으로 방향성을 잡아나가되, 기술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자문할 전문인력의 지역유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

● 요약

○ 2021년 1월 기준, 경남 벤처기업 수는 1,929개로 4.9%

- 경기도(30.4%)와 서울시(25.1%)이 전국 벤처기업 수의 절반 이상 차지
- 경남 업종별 벤처기업, 제조업 87.3%, 정보처리·S/W 4.7%
 전국 업종별 벤처기업, 제조업 64.9%, 정보처리·S/W 18.5%
 → 대규모 장치산업 중심의 경남산업 특성이 반영된 것
- 경남 취득 경로별 벤처기업, 재무안정형 95.4%, 연구·투자형 5.3%
 전국 취득 경로별 벤처기업, 재무안정형 85.0%, 연구·투자형 14.6%
 → 2월부터 재무안정형 벤처기업 인증 축소로 경남의 벤처기업지원책도 방향전환 필요

○ 경남지역 벤처기업 운영 여건

- 수도권과 비교(2.63)해서는 열악하지만, 수도권외 타지역(3.18)보다는 양호
- ‘업력 7년 미만’은 수도권과 타지역 모두와 비교해도 열악하다는 평가
 → 업력이 쌓일수록 제품의 성숙기를 거치면서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추어진 경남의 장점에 편승해 사업을 영위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
- * 3.0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 3.0 이하면 그 반대

- 벤처육성지원책 만족도, 양적지원(2.83), 질적지원(2.55) 모두 낮은 수준
 - ‘업력 7년 미만’, 양적, 질적 모두 ‘업력 7년 이상’에 비해 낮은 만족도
 -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문, ‘전문인력 수급’(20.5%), ‘자금지원’(20.5%) 꼽아
 - 질적인 면에서 낮은 만족도 보인 이유
 - ‘벤처기업 전문가 부족’ 31.2%, ‘기존산업에 매몰된 산업정책’ 27.5%
 - 양적지원은 전국 각 시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질적 지원의 높여나가는 노력 필요함을 시사
- 부문별(R&D·기획관리·영업) 전문인력 중요하지만, 만족도는 이에 못 미쳐
 - ‘업력 7년 미만’, 인력수급 중요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 인력수급 만족도는 오히려 낮은 수준
 - 인력수급에 어려움 느끼는 유형,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40.8%),
 - 급여·조건을 맞추기 어렵다(26.4%), ‘숙련자의 이직이 빈번하다’ 24.0% 등
 - ‘업력 7년 미만’, 전문인력 수급 애로, ‘업력 7년 이상’ 빈번한 이직 애로
 - 사업화 및 안정화가 우선 과제인 ‘업력 7년 미만’과 성장과 신사업 발굴을 함께 이루어야하는 ‘업력 7년 이상’과의 차이 시사
- 인력수급 이외에 애로로 ‘기회부족’과 ‘지역 기술 저평가하는 선입견’ 꼽아
 - ‘업력 7년 미만’, ‘R&D 및 설비투자 후 자금압박’ 22.9%
 - ‘업력 7년 이상’, ‘마케팅 전문성 부족에 따른 판로개척 애로’ 22.2%
 -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좋은 평가 받지 못하는 이유로
 - ‘자사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서’ 49.1%
 - ‘단순히 지역 소재 기업이라는 이유로’ 25.5%
 - 수행능력 평가 시스템 마련 및 수행이력 일변도의 관공서 입찰방식 변화와 지역 벤처기업이 가진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있어 지역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
- 경남 벤처기업 육성지원책의 질적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벤처기업 지원 전문 인력 확보’ 27.9%, ‘벤처 네트워크 활성화’ 17.0%,
 - ‘벤처기업 기술의 지역 내 활용’ 15.0%, ‘기술이력 관리 등 체계적 지원’ 15.0%